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언</li> <li>2. 충남유교문화의 전개양상</li> <li>3. 충남유교문화의 특성</li> <li>4. 충남유교문화의 위상</li> <li>5. 결어</li> </ol>
---

## 1. 서언

충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일찍이 이곳은 백제유학의 본거지였으며, 특히 조선조 유교문화의 전개에 있어 중핵적 위치에 있었다. 대체로 조선조 유교문화의 전개양상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기호유학과 영남유학, 율곡학과와 퇴계학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기호유학, 율곡학과의 주요 활동무대가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17세기 이후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계열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과 조화하면서, 새로운 유교문화의 중흥을 모색했던 곳이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충남유교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충남유교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미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가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본 연구의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은 시의 적절한 작업이었다고 평가된다.<sup>1)</sup> 이를 토대로 충남 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2)</sup>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정립과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충남 유교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 충남대학교 교수

1)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2001년 12월 7일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고, 여기에서 필자는 ‘충남유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 본고에서 충남유교문화의 범주는 조선조 유교문화에 국한한다. 그것은 실제로 그 이전의 유교문화가 갖는 학문적 성과나 가치가 비교적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학적 관점에서의 유교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충남유교문화의 전개양상

충남의 유교문화가 하나의 색채를 띠고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 여말 성리학의 도입기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백이정(白頤正 ; 彝齋, 1260-1340)<sup>3)</sup>, 이색(李穡 ; 牧隱, 1328-1396) 등이 있었고, 15세기에는 성삼문(成三問 ; 梅竹軒, 1418-1456), 박팽년(朴彭年 ; 醉琴軒, 1417-1456), 김정(金淨 ; 冲菴, 1486-1521) 등이 충절과 도학으로 이름이 있었고, 또 16세기에는 서경덕(徐敬德)의 뒤를 이은 이지함(李之菡 ; 士亭, 1517-1578), 서기(徐起 ; 孤靑, 1523-1591) 등이 기학적(氣學的) 색채를 드러내는 동시에 도학으로 존경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남의 유교문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율곡의 적전(嫡傳)이었던 김장생(金長生 ; 沙溪, 1548-1631)과 그의 문하에 있었던 김집(金集 ; 慎獨齋, 1574-1656), 송시열(宋時烈 ; 尤菴, 1607-1689), 송준길(宋浚吉 ; 同春堂, 1606-1672), 이유태(李惟泰 ; 草廬, 1548-1631), 조익(趙翼 ; 浦渚, 1579-1655), 김경여(金慶餘 ; 松崖, 1596-1653), 신흠(申欽 ; 象村, 1566-1628) 그리고 김집 문하의 유계(兪棨 ; 市南, 1607-1666), 윤선거(尹宣擧 ; 美村, 1610-1669) 등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장생, 김집 부자의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충남유교문화의 창출에 있어 산과역이나 다름없었다.

충남 유교문화의 창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심축은 송시열이었다. 그는 17세기 조선조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의 문인이었던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이른바 ‘인물성동이론변(人物性同異論辯)’이 벌어졌던 것이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바로 이론(異論)을 대표하는 한원진(韓元震 ; 南塘, 1682-1751)이요, 동론(同論)을 대표하는 이간(李柬 ; 巍巖, 1677-1727)이었다. 한원진의 문하에 송능상(宋能相 ; 雲坪, 1710-1758)이 있어 송환기(宋煥箕 ; 心齋, ?-1807)로 이어졌고, 또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정호(鄭濤)의 학맥은 송치규(宋樞圭 ; 剛齋, 1759-1838), 송달수(宋達洙 ; 守宗齋), 송병선(宋秉璿 ; 淵齋, 1836-1905)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비사승(非師承) 율곡 계열인 이재(李穡) 문하에서 송명흠(宋明欽 ; 櫟泉, 1705-1768), 임성주(任聖周 ; 鹿門, 1711-1788)가 나왔고, 김원행(金元行)의 문하에서 실학자 홍대용(洪大容 ; 湛軒, 1731-1783)이 나왔다. 아울러 박윤원(朴胤源)의 문하인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임헌晦(任憲晦 ; 全齋, 1811-1876)가 배출되었다.

충남 유교문화의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학맥이 이른바 ‘우계학과(牛溪學派)’ 내지 ‘소론파(少論派) 유학’이다.<sup>4)</sup> 이는 멀리 려말(麗末) 사림파(士林派)의 맥을 이은

3) 白頤正은 충남 남포(현 보령시 남포면 신흠리) 출신으로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 가서 10여 년동안 성리학을 연구하고 돌아와 가르쳤으며, 李齊賢, 朴忠佐, 李穀, 白文寶 등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4) ‘우계학과’는 아직 학계의 공인된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종은 <성우계사상연구논총>에서 우계를 ‘절충파의 비조’로 규정하면서 그의 학맥에 주목한 바 있으며, 최완기는 <한국 성리학의 맥>에서 우계학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론성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필자는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맥> (우계학보 21호, 2002)에서 우계학맥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우계학과’라 이름한 바 있다.

것으로,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의 계열인데, 성수침(成守琛 ; 청송, 1493-1564)이 조광조의 문인이었고, 성훈(成渾)은 성수침의 아들이자 문인이었다. 그리고 성훈의 학맥은 그의 사위이자 문인이었던 윤황(尹煌 ; 八松, 1572-1639)에게 이어져 윤선거(尹宣舉)-윤증(尹拯 ; 明齋, 1629-1714)으로 이어져 갔다. 따라서 창녕(昌寧) 성문(成門)의 가학(家學)은 파평(坡平) 윤문(尹門)의 가학으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녕 성문의 가학적 전통이 성삼문의 순절이후 ‘은거자수(隱居自守)’, ‘성현자기(聖賢自期)’였듯이, 파평 윤문의 경우에도 윤선거의 강도(江都)사건이후 이러한 학풍을 이어갔다. 특히 윤선거의 묘지명(墓誌銘) 사건과 예송(禮訟) 이후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은 정치적으로는 노론과 소론의 분열로 나타났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경향으로 나뉘어졌다.

또한 대전을 중심으로 남인계열의 권득기(權得己 ; 晩悔, 1570-1622), 권시(權誥 ; 炭翁, 1604-1672), 권이진(權以鎭 ; 有懷堂, 1668-1734)이 도산학풍(道山學風)을 열었고<sup>5)</sup>, 윤희(白湖, 1617-1680)도 경학, 성리학, 예학 등 다방면에서 충남유교문화의 다기화(多岐化)에 크게 기여하였다.<sup>6)</sup>

그밖에도 실사구시(實事求是) 실학을 대표하는 김정희(金正喜 ; 秋史, 1786-1856), 한말 의병을 일으켜 의리적 실천에 앞장섰던 최익현(崔益鉉 ; 勉菴, 1833-1901), 김복한(金福漢 ; 志山, 1860- ?), 『정역(正易)』을 저술하여 한국 역학(易學)을 천명했던 김항(金恒 ; 一夫, 1826-1898)<sup>7)</sup> 등이 있었다. 이를 학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8)</sup>

성리학 : 김장생, 김집, 김경여, 송시열, 송국필, 송준길, 권시, 이유태, 이간, 한원진,  
 송능상, 송환기, 송치규, 송달수, 송병선, 송규렴, 임성주, 송명흠, 권이진, 윤증,  
 최익현, 이철영

예 학 :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윤증, 윤희, 권시

5) 安東 權門의 대표적 유림가문의 하나인 이들은 權得己, 權誥, 權以鎭을 중심으로 17, 8세기 대전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은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으나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윤희, 윤증, 이유태 등과 밀접히 교류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교량역을 맡기도 하였다. 이들의 학풍은 이론성리학에서 벗어나 유학본래의 내면적 수기를 중시하였고, 마음공부와 실천성을 중시하는 도학풍을 지니고 있었다.<도산학보> 참조) 따라서 이들의 학풍은 율곡직계의 학풍보다는 우계학풍에 가까웠다고 평가된다. 특히 17세기 충남유학에서 노론, 소론의 갈등 속에서 이들 남인들의 중간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들의 학풍을 ‘道山書院’의 이름을 빌어 ‘道山學風’이라 부르기로 한다.

6) 윤희는 경주출신의 기호 남인계열 학자지만, 22살 때부터 공주 유전에서 7년 동안 거주하면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 윤선거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그는 예송에서 송시열과 대립하였고, 자주적 입장에서 경전해석을 하여 송시열로부터 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斯文亂賊’으로 몰려 조선조 유학사에서 소외되었고, 庚申大黜陟과 許堅의 獄事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자주적 학문태도와 방대한 저술은 물론 그가 충남유교문화에 끼친 영향과 위상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7) 金恒은 한말 충남 논산출신의 재야 유학자로서, 독창적인 한국역학으로 표방되는 <正易>을 저술하였다. 그는 연산 향적산에서 강학을 배웠고, <周易>과는 다른 새로운 正易卦圖를 창안함으로써 後天세계의 易理를 제시하였다. 그의 <正易>사상은 오늘날 학계, 종교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의 한국유학사적 위상 또한 재인식되고 있다.(李正浩의 <正易研究>, <正易과 一夫>, <第3의 易學>, <易學餐言> 참조)

8) 넓게 보면 모두가 성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므로 인물에 따라서는 분류의 중복이 불가피하다.

기 학 : 이지함, 서기, 임성주

의리학 : 성삼문, 박팽년, 김정, 송시열, 윤희, 송병선, 최익현, 김복한

인물성동이론 : 한원진, 이간, 현상벽, 최징후, 송명흠, 임성주, 임헌희, 송능상, 송치규

실 학 : 이지함, 홍대용, 김정희

양명학 : 조익, 신희

역 학 : 김항

### 3. 충남유교문화의 특성

#### 1)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영남유학에 비해 기호유학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색채를 지니고 전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9)</sup>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기호유학의 중심인물이 거의 충남지역의 인물이었고, 이들의 활동무대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영남유학 내지 퇴계학파의 경우 사상적으로 매우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성리학만 해도 퇴계설의 계승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테면 퇴계학파의 경우 김성일(金誠一)-장흥효(張興孝)-이현일(李玄逸)-이재(李裁)-이상정(李象靖), 이광정(李光靖)-남한조(南漢朝)-유치명(柳致明)-이원조(李源祚), 이진상(李震相)-곽종석(郭鍾錫), 이승희(李承熙)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성리학에 있어서 주리론(主理論)의 관점, 리발(理發)의 승인, 칠대사(七對四)의 논리 등은 변함없는 학풍이다. 기껏해야 이진상의 경우처럼 주리적(主理的) 관점이 더욱 강화되어 리일원(理一元)의 체계로 변화되는 것이 고작이다.<sup>10)</sup>

그러나 기호유학의 경우 이와는 다르다. 김장생-송시열-권상하-한원진으로 이어지는 율곡 직계 계열은 율곡학의 계승에 주력하지만, 이재(李穡), 이단상(李端相)을 비롯한 비사승(非師承) 율곡계열의 경우에는 율곡설만 고집하지 않고 퇴계설도 용납하면서 절충하는 특성을 갖는다.<sup>11)</sup> 그런가하면 한원진, 이간에서 보듯이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

9)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 76면.

10) 李震相은 퇴계학파의 중심인물이며 조선조 성리학의 6대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그의 학설은 퇴계의 主理論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理의 주도력과 절대성을 강화한 나머지 理一元의 철학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퇴계의 후손들은 이진상을 이단시하여 배척한 바 있으나, 근래 그의 학설은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다.

異)문제를 집중 논구하는가 하면, 임성주(任聖周)와 같은 주기적(主氣的) 성리학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예학(禮學)의 경우에도 김장생, 김집과는 달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을 절충, 조화해 보려는 개방적 학풍을 송준길을 통해 볼 수 있다.<sup>12)</sup> 더욱이 윤희-윤선거-윤증으로 이어 내려온 우계학파의 학풍이나 권득기-권시-권이진으로 이어 내려온 도산학풍(道山學風)에서는 이론 성리학에 구애되지 않고, 내면적 자기수양과 실천궁행을 중시하는 위기(爲己)의 학풍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율곡 직계 계열보다 학문적 유연성을 갖는 동시에 보다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학풍은 충남유교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우계의 학풍에 연원하는 바 없지 않다.

또한 18세기 북학과 실학의 선두주자였던 홍대용(洪大容)의 개방의식은 도암(陶菴) 이재(李穡)의 낙론(洛論)계열에 연원(淵源)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sup>13)</sup> 19세기에 이르러 김정희(金正喜)는 북학사상의 심화단계로서 실사구시학과(實事求是學派)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청나라의 고증학을 적극 수용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 무징불신(無徵不信)’이라는 학문 정신 하에 학문적 성숙을 한 후, 김정희 문하의 중인계층에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김정희의 사대부 출신 제자 및 중인출신 제자는 다함께 북학사상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교량역을 담당하였다.<sup>14)</sup>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송시열의 노론과 윤증의 소론 그리고 윤희, 권시 등 남인들이 학문적, 정치적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 갈등했던 곳이 충남지역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그러한 갈등과 논쟁 속에서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보다 성숙한 유교문화의 창출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이해가 결부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 부정적 일면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요컨대 충남유교문화는 그 내용면에서 보아도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예학, 의리학, 기학, 실학, 역학 등 다양한 색채를 띠고 전개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방적 학풍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경직된 보수적 학풍 속에서는 스승의 학설을 교조적으로 계승할 뿐, 학풍의 단조로움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 기호유학의 중심에서 있던 충남유교문화는 개방적 학풍 속에서 매우 다양한 유교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 2) 禮 문화의 창출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으로서 예(禮) 문화의 창출과 이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를 꼽을 수 있다. 17세기 예학시대의 도래는 시대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임진, 병자의 양

---

11) 황의동, 기호유학에 있어서 이기론의 특성과 전개, <국사관논총>, 제6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84면.  
12) 宋浚吉은 장인 愚伏 鄭經世의 禮學을 진수하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배상현, 조선조 기호학파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학원, 1991 참조)  
13) 김용현, 율곡학의 비판적 계승, 낙학과,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372면.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4, 26면.  
14) 정옥자, 위의 책, 27면.

란, 광해의 폐륜, 당쟁의 심화, 민란의 발호, 가뭄과 질병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 등으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윤리강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윤리의 재건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더욱이 16세기 성리학 전성기의 지나친 관념화 현상은 성리(性理) 실천으로서의 예학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에서 잉태된 예학이 김장생, 김집 부자와 그의 문인인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유계 등을 통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sup>15)</sup> 이들 외에도 남인계열의 윤희, 권시 등이 참여함으로써 예학 연구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 졌고, 예학활동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송시열, 송준길, 윤희, 권시 등 예송의 주역들이 바로 충남지역의 인물들이었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예학의 강학, 연구,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욱이 송준길은 그의 장인인 정경세(鄭經世)의 예학까지도 섭렵하여 기호예학과 영남예학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예학풍의 문화적 의의는 윤리적 생활과 삶을 통해 수준 높은 사회를 가꾸어 갔다는데 있다. 유학의 근본 목적이 인간성의 실현에 있다면, 그 실천적 과정에 예(禮)문화가 자리한다. 따라서 충남이 예문화 창출의 중심에서 있었음은 조선조의 수준 높은 정치실현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속적으로 충청도의 양반문화를 지칭할 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예문화의 기반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17세기를 주도한 송시열 등 노론세력은 조선이 중화(中華)의 적통(嫡統)을 계승한 '중화문화의 담당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중화문화의 실체로서 예문화의 확립은 필수적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7세기말부터 18세기 전반에 드러나기 시작한 조선의 고유문화 창달이라는 이른바 '진경문화(眞景文化)'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도 새겨도 좋을 것이다.<sup>16)</sup>

### 3)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

충남유교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의리적(義理的) 도학풍(道學風)을 들 수 있다. 도학(道學)이란 말은 송대(宋代)로부터 불리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 도학풍이 융성했다. 도학이란 유학 내지 성리학의 다른 이름이지만, 특별히 도학이라 부르는 것은 성리학의 도덕적 실천성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성리학이 지나치게 사변화(思辯化)되고 관념화(觀念化)되어 실천성이 결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에서 유학 본래의 위기지학(爲己之學)과 도(道)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다. 도학은 개인의 철저한 수기(修己)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정의의 실현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도학은 의리(義理), 대의(大義)의 실현에 의해 유학 본래의 도통(道統)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리학적 실천유학'이다.<sup>17)</sup>

15) 물론 예학이 기호지역에서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영남지역에서도 퇴계의 문인인 寒岡 鄭述가 김장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예학의 단서를 열었고, 이어 鄭經世, 張顯光, 許穆 등에 의해 예학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김장생, 김집 부자를 중심으로 그의 문인인 송시열, 송준길, 유계, 윤선거, 이유태 등이 중심이 된 기호예학이 예학시대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 정옥자, 위의 책, 23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학의 학문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이는 율곡이다. 그는 도학의 내용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이라 규정하고,<sup>18)</sup> 내면적 수기를 통해 성인과 같은 인격을 닦고, 나아가 사회, 국가, 인류세계에 왕도(王道)를 실현 할 때 비로소 진유(眞儒)가 되고 도학지사(道學之士)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9)</sup> 사실 이러한 잣대로 볼 때 도학에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도학풍에서 중시되는 것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태도요 철저한 내면적 자기수양이다. 그리고 자신과 사회에 대한 강렬한 도덕의식의 발휘다. 여기에서 도학과 의리적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으로서 의리적 도학풍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찍이 충남유교문화의 도학풍 내지 의리적 실천의 모범을 보인 이는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이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불의로 규정하고 온 몸을 던져 충절을 지켰다. 성삼문의 죽음이후 성수침(成守琛), 성제원(成悌元), 성제원(成聘壽), 성운(成運), 성우(成遇) 등 창녕(昌寧) 성문(成門)은 ‘은거자수(隱居自守)’, ‘성현자기(聖賢自期)’를 표방하며 위기(爲己)의 학풍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창녕 성문의 의리적 도학풍은 과평(坡平) 윤문(尹門)으로 이어져 윤황(尹煌)의 척화의리(斥和義理), 윤전(尹焜)의 순절(殉節), 윤선거(尹宣擧), 윤증(尹拯) 부자에서 보듯이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도학풍을 이어갔다.

다른 한편 15세기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이었던 김정(金淨)은 조광조와 더불어 지치(至治) 실현에 앞장서다 희생을 당했고, 병자호란을 당해 대청의리(對淸義理)에 앞장섰던 송시열(宋時烈), 한말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의리에 앞장섰던 송병선(宋秉璿), 최익현(崔益鉉), 김복한(金福漢) 등에서 의리적 실천의 모범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리적 도학풍의 계승은 충남을 ‘충절의 고장’으로 일컫는 원동력이 되었고, 자랑스런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 4. 충남유교문화의 위상

##### 1) 기호유학의 중핵적 위치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기호유학과 영남유학은 쌍벽을 이룬다. 기호유학은 또 율곡학과와 우계학파가 양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번창하여 왕성하게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충남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율곡학파는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중심의 場이 충남이었다. 아울러 창녕 成門, 坡平 尹門으로 이어 온 우계학파도 노성(魯城)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윤황(尹煌)의

17) 윤사순, 조선 초기 성리학의 전개, <한국철학사>, 중, 동명사, 1987, 144면.

18) <栗谷全書>, 卷15, 東湖問答: “ 夫道學者 格致以明乎善 誠正以修其身 蘊諸躬則爲天德 施之政則爲王道.”

19) 위의 책, 卷25, 聖學輯要7: “ 夫躬行仁義者天德也 教養生民者王道也.”

아들 윤훈거(尹勛擧), 윤순거(尹舜擧), 윤상거(尹商擧), 윤문거(尹文擧), 윤선거(尹宣擧), 윤민거(尹民擧), 윤경거(尹耕擧), 윤시거(尹時擧) 8형제와 손자 윤증(尹拯)의 역할이 매우 컸다.<sup>20)</sup>

특히 17세기 이후 정치적으로 노론과 소론 그리고 노론과 남인이 갈등하였던 곳도 충남이었고, 이념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보다 개방적 견해가 갈등했던 곳도 충남이었다. 또한 예송(禮訟)을 놓고 송시열, 송준길과 윤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이처럼 기호유학 내에서 다양한 학파 내지 정파가 각축, 대립, 갈등하면서 일면 새로운 유교문화의 발전을 모색했던 곳이 충남이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에 있었고, 활동인물이나 내용면에서 기호유학이 곧 충남유교문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던 것이다.

## 2) 人物性 同異論爭의 주도

한국유학사에서 16세기는 성리학의 전성기로서 사단칠정, 인심도심, 본연지성기질지성 등 인간의 심성문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 심성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천과의 관련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므로 16세기 성리학에 있어서는 천인(天人)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천인(天人)의 관계에서 나아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즉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나 다르냐 하는 소위 인물성(人物性) 동이(同異)논쟁이 되었다. 이는 당시 성리학계 최고의 문제거리였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조선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계속된 한국 성리학계 최고의 이론적 관심사였다.<sup>21)</sup> 이는 일종의 보편, 특수 논쟁으로 정(程), 주(朱)의 리일분수(理一分殊)나 율곡의 리통기국(理通氣局)에 근거하고 있었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을 놓고 리일분수(理一分殊)나 리통기국(理通氣局)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동일성과 차이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사상사적으로 보면 이 논쟁은 이미 박세당(朴世堂)과 김창협(金昌協), 박세채(朴世采)와 권상유(權尙游)간에 제기된 문제였지만,<sup>22)</sup>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권상하(權尙夏) 문하의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과 외암(巍巖) 이간(李柬)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모두 기호계열로 율곡 학맥에 연원 하지만, 리통(理通)의 관점과 기국(氣局)의 관점, 주리(主理)와 주기(主氣)의 관점에 따라 인(人), 물(物)의 관계를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권상하 문하에서 제기된 이 논쟁의 주역은 충남출신의 한원진과 이간이었다. 물론 권상하가 강학을 열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충북 제천의 청풍(淸風)이었지만, 그 주역들은 충남에 연고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간은 인

20) 윤정중 편저, <노종 5방파의 유서와 전통>, 선문인쇄사, 1999 참조.

21) 윤사순, 인성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21면.

22)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384면.

성과 물성이 같다는 입장에 서 있었고, 한원진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sup>23)</sup>

그 밖의 동료들도 양파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주장을 폈으니, 이는 18세기초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200여 년에 걸친 대 학술논쟁이었다. 18세기 이후 조선조 학자들마다 이 문제를 거론치 않은 이가 없을 만큼 이 논쟁은 한국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에 대해 쓸모없는 무익한 논쟁으로 간과하거나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쳤다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으나, 철학이 어차피 이론화의 작업이라면 이는 분명 조선조 성리학의 진일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을 통해 조선조 성리학이 보다 정밀하게 심화된 것은 송대 성리학이 남긴 과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물성 동이논쟁의 주역이 충남출신의 한원진, 이간이었다는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을 재인식할 수 있다.

### 3) 禮 문화 창조의 주도적 위치

16세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지나 17세기에 이르러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요구에 따라 예학이 대두되었고, 이후 이른바 백여 년의 예학시대가 전개되었다. 조선시대의 예학은 송대 성리학이 미진하게 남겨놓은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려는 의미가 짙다. 이는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은 예학을 완결함으로써 성리학의 도통(道統)을 조선성리학이, 그것도 기호학파가 주도적으로 계승, 실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한다.<sup>24)</sup>

예치(禮治)란 왕도정치 실현의 구체적 내용으로 예(禮)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형태였다. 16세기에는 인간의 심성을 수양하는 심성론이 발달하여,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이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 제기되는 등 수기(修己)에 치중하였는데, 17세기에 이르러 치인(治人)에 비중을 둔 실천윤리, 사회윤리로서 예론(禮論)이 발달하게 된 것은 성리학 연구의 심화로 볼 수 있다. 예론(禮論) 발달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정의에 대한 강렬한 추구이다. 17세기에 서인학계와 남인학계에서 대량 출간되는 예서(禮書)는 각기 상이한 예론(禮論)을 집대성한 축적으로 예치(禮治)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두 차례의 예송(禮訟)은 예론(禮論)이 정치 문제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예학은 17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호에서는 김장생이 『가례집람(家禮輯覽)』 10권 6책을 썼고, 영남에서는 정구(鄭逵)가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20권 7책을 썼으니 이것이 그 시발점이다. 김장생은 그밖에도 『전례문답(典禮問答)』, 『상례비요(喪禮備要)』, 『의례문해(疑禮問解)』를

23) 두 사람의 논쟁의 초점은 本然之性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있었다. 李柬은 이 본연지성을 理一之理로 보아 人, 物의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韓元震은 본연지성을 理氣妙合으로서의 氣質之性으로 보아 人, 物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24) 이동인 등,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62면.

25) 정옥자, 위의 책, 22면.

저술하였고, 이후 김집의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고금상례이동의(古今喪禮異同議)』, 유계와 윤선거의 『가례원류(家禮源流)』, 송시열의 『경례문답(經禮問答)』, 이유태의 『의례문답(疑禮問答)』, 윤증의 『의례문답(疑禮問答)』 등이 나왔다.

이와 같이 17세기 예학시대에 있어 충남지역 유학자들의 활약은 컸고, 실질적으로 예학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그것은 예학연구의 저술이나 강학의 면에서도 그렇고 예송의 경우 그 중심인물이 거의 충남의 유학자들이었다. 즉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그리고 이들에 맞서 견해를 달리했던 윤희가 바로 충남의 유학자였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한국유학사에 있어서 17세기 예문화의 창출과 그 발전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 5. 결어

충남지역은 우리나라 유학사에 있어서 기호유학의 중심지요 율곡학과와 우계학과의 본거지였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계열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 조화하면서 새로운 유교문화의 창출을 모색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특성과 위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은 무엇보다 개방성과 다양성에 있다. 기호유학이 영남유학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데, 기호유학의 중심이 충남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충남유교문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기학, 의리학, 실학, 예학 등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성리학만 하더라도 율곡직계의 계열은 율곡설의 계승에 주력하지만, 우계학과나 비사승 율곡계열의 경우에는 율곡설에 매이지 않고 퇴계설까지도 용납하는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성리학의 이론적 천착에만 매이지 않고 유학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내면적 수양을 중시하는 의리적 도학풍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유교문화의 이러한 다양한 전개는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한 개방적 학풍에서 가능하다. 율곡 자신이 그랬듯이 그 후학들에게서도 학문의 수용성,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우계학과나 비사승(非師承) 율곡계열의 경우 이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유교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禮) 문화의 창출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에 있다. 예학은 17세기 국가기강의 문란과 윤리강상의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16세기 성리학시대의 지나친 사변화(思辨化)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예학은 김장생, 김집 부자와 그의 문하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강학함으로써 한 시대의 학풍을 이루었다. 이는 ‘충청도 양반’이라든지 충청도가 예의 고장이라 부르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충남유교문화의 특징은 의리적 도학풍에 있다. 도학은 내면적 수기를 중시하고 사회적 정의실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리적 실천을 포함한다.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의 순절이후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던 김정(金淨)의 죽음, 윤황(尹煌)의 척화외리, 송시열의 북벌외리, 송병선, 최익현, 김복한의 항일외리를 통해 충남유교문화의 의리적 전통

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상을 갖는다. 충남지역은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한 율곡학파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昌寧 成門, 坡平 尹門으로 이어온 우계학파의 중심지였다. 아울러 윤희, 권시 등 기호 남인계열이 또 한 축을 이루어 각축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따라서 충남유교문화는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한국유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하겠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는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논쟁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유학사에서 성리학의 진일보를 이룩하였다. 16세기가 천인(天人)관계 속에서 인성(人性)의 내면문제를 주로 연구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 철학적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이는 송시열의 문인인 권상하의 문하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중심인물이 충남출신인 한원진, 이간이었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비록 충북지방이었지만, 이 논쟁의 주역이 바로 충남유학자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유학사에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同異)’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200여 년간에 걸친 학술논쟁을 통해 성리학의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성리학 나름의 특성과 성과를 거양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끝으로 충남유교문화는 17세기 예학시대에 있어 예문화의 창출에 주도적 위치에 있었고, 한국유학사에 있어 예학시대 전개의 중핵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충남유교문화는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예문화의 창출과 이를 통한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충남유교문화는 한국유학사에서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고, 특히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어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충남유교문화는 율곡학파(栗谷學派), 비사승율곡학파(非師承栗谷學派), 우계학파(牛溪學派), 도산학파(道山學派), 영남유학(嶺南儒學)이 이 지역에서 갈등, 대립하면서 다양한 유교문화를 꽃피웠는데, 구체적으로는 율곡성리학, 기학, 인물성동이론, 의리학, 양명학, 예학, 실학 등 다채로운 유교문화를 장식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예 문화 창출의 중심지였고, 200여 년에 걸친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논쟁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충남유교문화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正易>

<栗谷全書>

유명중, 절충파의 비조, <성우계사상연구논총>, 우계문화재단, 1991.

최완기, <한국성리학의 맥>, 느티나무, 1993.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1.

김용현, 율곡학의 비판적 계승, 낙학과,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배상현, 조선조 기호학파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박사논문), 1991.

정옥자,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4.

윤사순, 조선 초기 성리학의 전개, <한국철학사>, 중, 동명사, 1987.

윤사순, 인성물성의 동이논변에 대한 연구, <인성물성론>, 한길사, 1994.

윤정중, <노종 5방파의 유서와 전통>, 선문인쇄사, 1999.

이병도, <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동인 등,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황의동, 기호유학에 있어서 이기론의 특성과 전개, <국사관논총>, 제6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5.

황의동, 충남유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남역사문화연구소, 2001.

황의동, 우계학의 전승과 그 학맥, <우계학보>, 21호, 우계문화재단, 2002.

황의동, <율곡학의 선구와 후예>, 예문서원, 1999.